

벽 허물기와 뚜껑 열기

권 대 봉

국민대 교양과정부 교수



대형사고나 사건이 터질 때마다 최종적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것은 교육이다. 언론과 국민들은 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반인륜적 반사회적 사건이 일어난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교육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불행히도 한국사회 곳곳에 한국교육이 죽어가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기업경영자들은 “기업은 불량품을 생산하면 교환해주지만, 학교는 불량품을 생산하고도 바꿔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학교교육의 부실로 기업의 재교육비가 엄청나게 소요되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건설한 아파트가 붕괴 위험에 처하여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였고, 공해물질을 낙동강에 무단방류하여 식수를 오염시켰으며, 기업의 부실한 시공과 정부의 부실한 관리로 한강을 가로지르는 성수대교가 붕괴되었고, 대기업 사원들이 다른 회사에 들어가 기술을 훔치려다가 발각된 것을 보면, 학교교육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의 재교

육도 죽어가고 있는 것 같다.

밥이 되고, 약이 되며, 꿈을 주는 수업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가정교육, 학교교육, 직장교육, 사회교육의 마당에서 제 몫을 해야 한다. 직장교육의 마당인 쌍용그룹 중앙연수원을 들어서면 “교육은 밥이다. 교육은 약이다. 교육은 꿈이다.”라는 글귀가 출입자들을 맞이한다. 이 글귀는 김태문 쌍용그룹 중앙연수원장의 교육철학이 세 마디로 표현된 것이다. 이제까지 나온 어떤 교육이론가의 교육에 대한 정의보다 더 명쾌한 정의라고 나는 생각한다.

교육은 왜 밥인가? 그에 의하면 “사람이 끼니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처럼 교육이란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식사와 양과 질이 연령, 활동, 건강 상태에 따라 각각 알맞아야 하는 것처럼 교육의 기회, 질, 양도 적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은 왜 약인가? “흐트러진 정신을 바로 잡아주고, 떨어진 사기를 진작하며, 개인과 조

직의 역량을 엄청나게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므로” 교육은 명약이라는 것이다.

교육은 왜 꿈인가? 교육은 “꿈을 잃고 방황하다가 낙오하는 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고, 야심 찬 젊은이에게는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북돋워 주기 때문에” 교육은 꿈이라는 것이 그의 교육철학이다. 이와 같은 교육철학을 산업교육의 마당에서 구현하고 있는 김태문 원장은 “국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이 살아야 하고, 교육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권력을 가진 고위공무원과 정치인, 돈을 가진 기업인, 지식과 정보를 가진 교육가와 언론인, 인류 공동선을 추구하는 종교인들이 제 몫을 다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한국교육을 살리기 위해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지식을 창출하고 교수하는 교육가의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수업을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나에게서는 학생들에게 밥이 되고 약이 되며 꿈을 줄 수 있는 살아 있는 수업을 진행하는 원칙이 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수업 전에 마음에 새기며, 수업 후에 점검해보는 습관이 있다. 그 원칙은 바로 이것이다.

수업은 즐거워야 한다.

그리고 수업후 남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수업 진행 원칙은 내가 가진 교육철학의 편견에 불과하다. 따라서 나와 전공이 같거나 유사한 분들에게는 혹시 참고가 될 수 있겠지만, 전공이 다른 분들에게는 전혀 참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수업은 왜 즐거워야 하는가? 그리고 왜 수업 후 남는 것이 있어야 하는가? 수업에는 교수와 학생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학부모와 재단,

정부의 보조금(즉, 국민의 세금),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 자신이 부담하는 돈이 투입된다. 여러 사람의 시간, 에너지, 돈이 투입되는 수업은 당연히 즐거워야 하며, 수업 후 남는 것이 있어야 한다. 김태문 원장의 표현을 빌면 학생들에게 밥이 되고 약이 되며 꿈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살아있는 수업이 되며 죽어가는 한국의 교육을 기초에서부터 살릴 수 있다.

마음의 벽 허물기

즐거운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나는 매학기 초에 마음의 벽 허물기와 교과목 병 두경열기를 실시한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학습활동 참여도를 유발하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벽 허물기는 교과목과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으나, 학생들의 불안을 제거하고 긴장과 걱정을 해소시키는 데 필요하다. 벽 허물기는 서로 잘 모르는 여러 학과의 학생들이 모였을 때 사용하면 특히 효과가 있다. 벽 허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알맞은 방법을 고르거나 고안해서 사용하여야 효과적이다. 만약 학생들끼리 잘 아는 사이라면 벽 허물기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교과목 병 두경열기를 사용하면 학생들이 교과공부에 부드럽게 진입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나의 경험에 의하면, 벽 허물기와 두경열기는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매우 유익하였다.

벽 허물기는 나와 학생들, 혹은 학생들 상호간의 마음의 벽을 허물어 학습이 잘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의 시작기법 중의 하나로 대체로 학생들이 서로 잘 모르는 경우에 사용한다. 벽 허물기를 통하여 주로 학생들의 성격을 파악하여 학생들이 유연하고도 효과적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한다. 내가 사용한 벽 허물기 방법 네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학입학 목적과 미래의 자화상에 관한 이야기

- ① 두 명씩 한조를 이룬다.
- ② 약 5분씩 각각 상대방을 인터뷰한다. 인터뷰 내용은 자유롭게 하되 대학입학 목적, 목적달성 정도, 10년 후의 자화상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 ③ 인터뷰한 것을 토대로 상대방을 전체 학습자에게 소개한다.
- ④ 만약에 전체 학습그룹이 30명이 넘을 때는 6명 정도의 소집단으로 나누어서 소집단 내에서 소개하도록 한다.

2. 십오세 이전의 경험에 관한 이야기

학생들로 하여금 아래 사항을 각자 기록하도록 한 다음에 자기가 기록한 것을 가지고 두명씩 한조를 이루어 이야기를 나누게 한다. 계속해서 조원을 바꾸어서 이야기하게 하거나, 혹은 소집단 내에서 집단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한다.

- ① 십오세 이전에 가장 재미있었던 기억은?
- ② 십오세 이전에 이루었던 가장 큰 성취는?
- ③ 현재 가지고 있는 소장품 중 가장 소중한 것은?

3. 인생의 가치 평가

① 인생의 가치를 열거한다 : 만족스러운 가정 생활, 만족스러운 친구관계,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 개인적인 성장, 직업적 성공이나 직장에서의 출세, 건강, 돈, 권력, 명예, 재미나 모험을 즐기는 것, 좋은 이웃이 되는 것, 전문적인 성취 발견 발명 저술, 향토사회 발전, 애국.

- ② 참석자들에게 5분간의 시간을 주고 자기에

게 가장 소중한 가치 7가지를 선택하게 한다.

- ③ 5~6명의 소그룹으로 하여금 토론을 거쳐 7가지의 중요한 인생가치의 합의를 도출하도록 한다.

4. 상대방 성격 알아 맞추기

- ① 두 사람이 한조가 되어서 각자 자기의 성격적 특성이나 취미에 관해 네 가지 정도 상대방에게 설명을 해준다. 그 중의 한 가지는 사실과 다른 것을 포함시킨다.
- ②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것을 찾도록 한다.

교과목 병 두껍열기

수업이 남는 것이 되려면 교과목 병 두껍열기가 필요하다. 두껍열기란 수업이라는 병의 두껍을 여는 것으로 학생들이 교과수업을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의 시작 기법이다. 두껍열기는 학생들이 서로 잘 알거나 모르거나에 관계없이 필요하다. 벽 허물기와 다른 점은 두껍열기는 반드시 교과와 관련이 있는 서론 부분이어야 하며, 주로 학생들의 태도를 파악하여 학생들이 유연하고도 효과적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기법이다. 두껍열기로 학습동기 유발이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곧바로 본 수업에 들어 가도록 해야 하며 두껍열기로 시간을 질질 끌면 비효과적이다.

첫째, 학생들의 학습목표를 분석한다. 즉, 한 학기가 끝난 후 학생들이 나의 수업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목표를 적도록 하고 소집단별로 합의된 학습목표를 몇 가지 칠판에 적도록 한다. 이때 교수의 학습목표도 칠판에 적는다. 그리고 나서 전체 학생들에게 그 목표가 달성가능

